

能動的 人間의 探究(1)

哲學과 文學의 接觸面

金午星

나는 나의 未熟한 體驗과 思索에서 어더진 若干의 哲學的인 것을 能動主義란 名詞 밧해서 表現해 보려고 한다. 能動主義라 할 때에 論者들은 最近 佛文壇에서 提起된 行動主義 등을 聯想하리라. 내가 말하려는 能動主義가 이러한 行動主義的 傾向에서 刺戟된 것임은 두말 할 것도 업다. 『行動的인 것』 또는 『能動的인 것』은 歷史的인 限界 狀況에 서 잇는 現代 文化에 잇서 한 개의 새로운 性格을 代表하는 것이라고도 생각 키운다. 그것은 行動主義 등이 『不安으로부터 再建에』를 標語로 하고 나타남을 보았서도 알 수 잇는 일이다.

지금 우리는 人類가 일즉이 經驗하지 못한 絶大한 不安과 混亂의 過中에 들어있다. 一切의 낡은 것은 一時의 安定도 維持치 못하며 그것에 代身할 새로운 것은 낡은 것의 最後 干涉 때문에 그 進路가 막히여 不安과 苦惱에 잠겨있다. 그리하여 大多數의 人間은 그生存의 最大威脅을 맞고있다. 이렇게 『人間 生活이 威脅되여 死가 不絶히 到來하려는 大 擾亂期에는 반듯이 神秘主義와 迷信에 젯은 機會를 提供해야 모든 論理的 想像의 價値, 나아가서는 推理力의 價値를 一覺에 掠奪하는 것이다.』라고 『不安과 再建』의 著者 만자민 그리류는 말하였다. 市民 社會의 指道 原理이든 主觀主義는 너무나 主觀的 個性的인 때문에 現實的으로 強迫하는 客觀性 社會性을 統制 할 수 업서 그 支配力을 喪失케 되었으며 그에 對立하는 客觀主義는 너무나 客觀的 沒人間的인 때문에 現實에 對한 主體的인 生産性의 缺乏을 맞보고 잇는 듯 쉽다.

그 우에 世紀末的인 과시즘의 爆行은 더 한층 文化의 危機 文化人의 不安을 招來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現實的 事態에 恐怖와 呪咀를 느끼는 無力한 인테리들의 입에서는 『危機의 哲學』 『不安의 文學』 『絶望의 文學』 등이 絶叫되고 있다. 이러한 文學的 混亂相은 現實的 生活의 不安相과 함께 사람들로

하여금 思考力을 빼앗고 迷路에 彷徨케 하는 듯 쉽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이러한 不安과 危機 속에서 永遠히 滅亡 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러한 危機로부터 脫出하려는 어떤 主體的인 決意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우리는 오늘의 危機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것을 爲한 主體的인 決意를 促하는 歷史的 契機로서 把握하지 않으면 안된다. 受動的으로 精神病者가 되거나 能動的으로 刺殺하거나 그러치 않을진대 어떤 信念을 가지고 압 길을 打開하지 않을 수 박게 업다고 한 기에르케골[키에르케고르]의 말은 現代人의 決意를 促하는 名句라고도 생각된다. 지금 大多數는 새것의 提示를 渴望하고 있다 行動主義는 이러한 不安으로부터 脫出하여 人類의 明日을 再建 할 것을 約束하면서 나타났다. 그것은 行動主義者인 반자만. 그레류가 『不安의 精神은 再建의 精神의 必須的인 序幕이며 그 地盤이다.』라고 한 것이라든가. 앙드레.지-드가 『苦惱가 항상 우리를 高揚시키기를 希望한다. 苦惱가 우리를 滅亡시키지 않는 限에서 우리를 곳세계 觀□시키기를 希望한다.』라고 한 것이라든가. 안드레.베르쥬가 近代文學의 不安을 指摘하면서 『不安은 거의 항상 思想의 相克 前人 未踏의 境地에 드러 가려는 企圖를 伴한 感情 狀態이다. 時代의 關爭特히 傳統에의 反抗은 不安의 感情으로부터 떼낼 수 업는 問題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도 今日的 行動主義가 『不安으로부터 再建에』라는 進步的인 意義에서 出發하고 잇슴을 □□ 할 수 잇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行動”이란 術語의 그 現代的인 魅力에 深醉되여서는 안된다. 웨-그러나하면 實際에 잇서 行動主義의 그 大部分은 “再建” 또는 “行動” 등의 單히 그 術語的 魅力 때문에 만든 사람들을 魅惑시키는데 지내지 않는 까닭이다. 그 實例로는 行動主義의 主唱者인 페르낭데스가 “行動”을 身體的 感性的인 것을 떠난 瞬間的이요, 精神的인 “恣意”로서 解釋하고 잇슴을 보았서도 알 수 잇는 일이다. 페르낭데스에 依하면 人間은 內的 人間과 外的 人間으로서 갈나서 볼 수가 있다. 우리는 外的 人間에서 世間을 알게 되고 內的 人間에서 人間性을 알게 된다. 小說家는 이러한 外的 人間과 內的 人間을 一致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人間의 內的 生活과 外的 生活을 一致시키는 것은 “行動”이다. “이 行動의 觀點은 個的 人間을 그 全體性에서와 同時에 □□自的 안 現實性에서 統覺 할 수 잇는 唯一의 觀點이다. 그런대 人格의 本質은 精神이다. 그러므로 高等한 精神 生活은 外的 刺戟에 對한 再建 反對作用이 아니라 一種의 心的 精神 狀態인 行動 즉 “姿勢”에서 決定된다.